

주요 합의 사항 초안

(문단 번호는 기존의 기소장에 따랐습니다.)

1.6 1904년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은 십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대한 제국을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러일 전쟁이 끝나고,¹ 일본은 대한 제국에서의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였다.

1.7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하여 일본은 대한 제국 정부의 대표자들을 강압하여 1905년 '을사 5조약'을 서명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종속시키려 하였다.² 일본은 또한 1907년 조약을 통해 대한 제국의 내정을 통치할 권한을 박탈하고 10만 명의 대한 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1910년 일본 제국은 대한 제국을 합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³ 이 조약들은 국제법상 무효이다.

1.24 1937년 중일전쟁이후 일본은 침략 전쟁을 확대시켜 북쪽으로는 알류산 열도까지, 동쪽으로는 태평양의 솔로몬 제도까지 남쪽으로는 뉴기니아를 비롯한 남태평양 제도까지, 서쪽으로는 인도양의 안다만과 니코바르, 버마에까지 이르렀다. 연합군과 일본군이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일본군이 주둔한 곳이면 어디든지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일본 본토와 중일전쟁 이전에 일본에 강점된 조선,⁴ 일본의 세력권에 들어간 대만, 북중국⁵에도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4.2 러일전쟁(1904 - 1905) 중에 이미 대한 제국의 영토가 전장이 되었고, 일본군은 대한 제국에 군대를 보내 대한 제국의 영토를 강제로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강점군의 뒷받침 아래 1910년 조약을 강요하였다. 조선의 인민은 일제의 강점을 그저 무저항적으로 수긍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 인민은 의병투쟁, 독립군운동, 1919년 3월 1일의 반일시위, 상해 임시정부 활동 그리고 항일무장투쟁 등을 통해 일제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 타격을 주었다.

4.3 조선에서의 일본 군사 정부는 그 존속기간 동안 형태와 성격에 있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 단계로 조선에서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고 조선 영토의 일부에 대해 계엄이 실시되었다. 일제의 통치형태는 통감부에서 1945년까지 지속된 총독부로 바뀌었다. 비록 조선이 일본의 일부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문제의 기간 동안 조선에 대한 일제 강점의 성격은 국제법적으로 군사 점령(military occupation)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

¹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

² Treaty of November 17, 1905; Martens, *Nouveau Recueil Général de Traités*, 2me Série, vol. 34, p. 727.

³ Treaty regarding the Ann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 29 August 1910. 이 조약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한일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다.

⁴ 방진의 위안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⁵ 조선인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간 곳은 위안소의 분포지역에 관한 지도 참조.

다.

5.76 일본군성노예는 또한 조선사람들의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정책의 일환이다. 반복적인 강간은 여성들의 생식기의 파손을 가져왔다. 이들은 성병, ‘606(수은 성분, salvarsan) 주사’의 남용, 원치 않는 임신과 무분별한 낙태 수술 등을 당했다. 이러한 조선 여성들의 상황은 일제가 다산을 장려했던 일본 여성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5.77 ‘위안부’의 총수는 20 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증언에 따르면 이들 대다수는 일제의 강점 하에 있던 조선의 여성들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인 ‘위안부’의 동원과 성적 착취는 조선 사람들의 집단학살 정책으로서 실행되었다.